법공양 페이지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의 정성 있어야 등 켤수 있어

오늘은 대도사인 부처님께서 오신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이 벅찹니다. 부처님이 고행하신 길과 수많은 선지식들이 걸어오신 길의 그 뜻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돈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을 켜는 것과 같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 갈 때를 말합니다. 수많은 큰스님네들께서 도를 이룰 때 걸어온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벅찹니다. 지금 스님네들이야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옛날에는 정신적인 탄압과 물질적인 것 등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은 다 생각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따르는 어려운 것들을 다 무릅쓰고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 채.

다른 걸 보지 마십시오. 촛불을 한 번 켜 보십시오. 초가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촛불을 켜서 그 몸이 다 타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사는가, 어떻게 해야 굶기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가르칠까.' 하고 돌보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도 만중생을 위해서, 아니 만중생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차원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근본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살얼음을 딛고 몸을 태워가면서 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상(四相)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이만하면 갖추었지 하는 오만'을 말합니다. 이 사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 모든것은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와
> 나를 시험하려 괴롭히는 것이니
> 나온자리 되놓으면 모두 없어져요

사상을 다 버리고 인생의 길이 어떠한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모두 원인이 있죠. 항상 말하듯이 '지수화풍에서 생명이 생겨서 지수화풍으로 뭉쳐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으로 또 흩어진다.' 이런 인생길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도 고생이라고 할 건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또 자기가 어떻게 뿌리면은 잘 거둘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 오다보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불사르듯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을 오늘 하루만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하여간 모든 종교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의 생명의 근본이 불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나 삶은 다 똑같애요. 미생물에 관한 건까지도 전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써 밝힌다면 모두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음으로써 한 개체가 아닌가.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어디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까? 내 몸 한 개체에 모두 같이 모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도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 지구에 집을 삼아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장에 닭을 가둬놓듯이 '너희들은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죽는다' 해서 그 공기주머니 안에다가 넣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바로 그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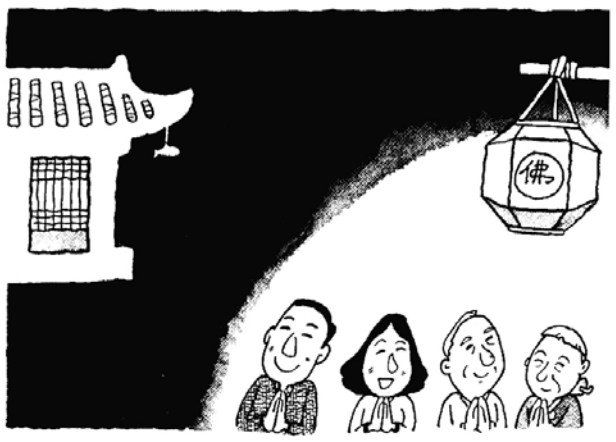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께서나 역대 조사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서 초를 불로 태우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오늘날을 있게 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물론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그 몸을 태워서 촛농이 떨어지듯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서로서로 마음이 응신이 돼서 여러 생명체들에게 같이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도 갖출 수 있고 악도 갖출 수 있고, 자비도 갖출 수 있고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넓게 쓰는 대로 넓게 공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면 그냥 행이고 넓게 쓰면 공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공생!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많은 줄은 알고 계시죠? 생명이 많은 줄은 아시니까 이것이 바로 공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생이면서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공체로 혼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그냥 생각을 하느냐, 한생각을 하느냐 이 문젭니다. 내가 한생각을 하면은 모두가 더불어 같이 한 손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한데 떨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대로 자기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생명의 근본이란 얘깁니다. 우린 더 못나고 더 잘나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딨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맘대로 쓰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도리에는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는데,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는 그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끌어 주고, 악과 선을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진리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뒤바뀌면서 고등동물인 이 인간까지 올라오기에도 힘이 벅찬데,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베풀어줘도 베풀어주는 사이가 없고,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대무변해서!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작아서 넘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체가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이 허공에 영이 가득 차있다면 그 가득 차있는 허공을 다 집어 삼킨다고 해서 이 마음이 두드러질까요, 두드러지지 않죠. 넣어도 넣는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까닭에 잘 살든 못 살든 이 고(苦)의 중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내가 여기로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도 미생물은 물론 모두가 내 몸 아님이 하나도 없음을 알테니 몸으로 굳이 태어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바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둘 아니게 지으셨습니다. 몇 만년 전으로도 갈 수 있고 몇 만년 후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항상 계시니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모자라는 게 많아서' 라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없다면 갖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 넘치는 것, 악한 것 선한 것, 긴 것 짧은 것, 못난 것 잘난 것, 잘사는 것 못사는 것, 어려운 것 어렵지 않은 것, 모두가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부처의 몸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아프고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이니라 하고요. 그러나 알고서 넉넉하게 어려움이 없이 걷는 걸음과 모르고 '아이구!' 하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걷는 걸음과는 다르겠죠. 부처님께서나 역대 조사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도 정해진 겁니다.

> 창살없는 감옥서 벗어나게 하려고
> 제불 조사께서 촛불 태우듯
> 자기 몸을 태워 오늘 있게 한거죠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도 바로 부처님의 자불,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처, 즉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자불의 연등이죠. 연등이라는 뜻은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등부처가 '너는 이 다음에 석가모니가 돼라.' 하셨던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수기를 내리신 거니까, 주고받은 사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 25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걸 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卐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 · 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불자들의 모임
공급처 :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명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융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탁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시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